

2014학년도 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국 어

수험 번호 : () 성 명 : ()

| | | | |
|-------|----------|---------|-----------|
| 1차 시험 | 3 교시 전공B | 4문항 30점 | 시험 시간 90분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술형 [1~2]

1.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서술자가 누구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이야기 전달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도하고자 한다. 다음 작품을 학습 자료로 활용하여 지도할 내용을 <보기>의 지시에 따라 서술하십시오. [5점]

(가) 허 생원은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다. 열금뱅이 상판을 쳐들고 대어 설 숫기도 없었으나, 계집 편에서 정을 보낸 적도 없었고,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 충죽집을 생각만 하여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뺌이 떨리고 그 자리에 소스라쳐 버린다. 충죽집 문을 들어서서 술좌석에서 짜장 동이를 만났을 때에는 어찌된 서슬엔지 발끈 화가 나 버렸다. 상 위에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법 계집과 농탕치는 것을 보고서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녀석이 제법 난질꾼인데 꼴사납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쳐먹고 계집과 농탕이야. 장돌뱅이 망신만 시키고 돌아다니누나. 그 꼴에 우리들과 한몫 보자는 썸이지. 동이 앞에 막아서면서부터 책망이었다. 걱정두 팔자요 하는 듯이 뻔히 쳐다보는 상기된 눈망울에 부딪힐 때, 걸짐에 따귀를 하나 갈겨 주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다. 동이도 화를 쓰고 껍하고 일어서기는 하였으나, 허 생원은 조금도 동색하는 법 없이 마음먹은 대로는 다 지꼈었다.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나) 여자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났다. 이제 나를 소유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저이는 나를 소중히 하지 않는 거야. 그러길래 내 주름살 따위가 눈에 띄기 시작한 거라구. 여자는 남자의 피곤한 얼굴에 대고 까다로운 표정으로 맞선다.

“차 뭘로 할래?”

이 카페의 젊은 주인 남자가 옆에 다가와 서자 남자가 묻는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뭘지 아직도 몰라?”

“커피 마시지?”

“무슨 커피데? 나한테 관심 있다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남자는 여자의 난데없는 응석도 마땅찮거니와 무엇보다 주인 남자를 옆에 세워 놓고 자기들끼리의 감정을 노출하는 일 따위는 경박하다고 생각하여 얼굴을 찡그린다. 여자가 재촉한다.

“응? 말해 봐. 내가 무슨 커피 좋아하는지.”

“피곤하게 그러지 마. 애들도 아니고, 어울리지 않게.”

여자의 표정이 대번 일그러지는 것을 보면서 남자는 그냥 커피와 녹차를 주문한다.

- 은희경, 「특별하고도 위대한 연인」

—<보 기>—

1. ‘서술자가 누구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전달하는가’를 기준으로 (가)와 (나)의 차이를 밝힐 것.
2. (나)의 이야기 전달 방식과 인물 간의 관계가 인물에 대한 독자의 공감과 정서적 거리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밝힐 것.
3. 작품 전체를 고려하지 말고, 제시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할 것.

2. <보기 1>은 청자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를 재구성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수업에 활용한 자료이고, <보기 2>는 그 수업에서 한 학생이 작성한 글이다. 먼저 시각 자료의 활용 측면에서 학생 글의 장점을 근거와 함께 설명하고, 자료 해석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후 이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을 서술하시오. [5점]

<보기 1>

질문 다음 용기들은 컵일까요, 사발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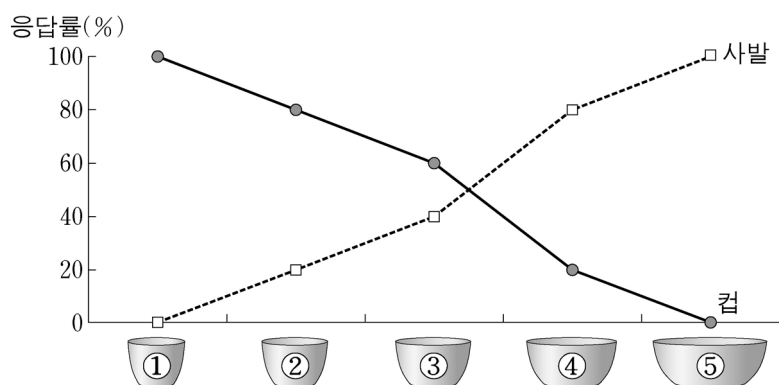
응답 결과(2개 학급)

| 조건 | '컵'이라고 한 응답률(%) | | | | | '사발'이라고 한 응답률(%) | | | | |
|------|-----------------|----|----|----|----|------------------|----|----|----|-----|
| | ①번 | ②번 | ③번 | ④번 | ⑤번 | ①번 | ②번 | ③번 | ④번 | ⑤번 |
| 빈 상태 | 100 | 80 | 60 | 20 | 0 | 0 | 20 | 40 | 80 | 100 |
| 수프 | 30 | 20 | 10 | 5 | 3 | 70 | 80 | 90 | 95 | 97 |
| 커피 | 97 | 95 | 90 | 80 | 70 | 3 | 5 | 10 | 20 | 30 |

<보기 2>

컵과 사발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 보통 밑면적이 좁은 것을 컵이라고 하고 넓은 것을 사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도표를 보면 ①번을 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이지만, ⑤번을 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⑤번을 사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이지만, ①번을 사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현상을 알기 쉽게 선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개 학급의 응답 결과



위 그래프를 보면 대체로 ③번과 ④번 용기 사이에서 컵과 사발의 의미가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용기에 무엇을 담았는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컵과 사발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논술형 [1~2]

1. <독서와 문법>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김 교사는 해례본 『훈민정음』을 설명하는 글을 활용하여 글의 짜임을 파악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다음 학습 자료는 수업에 활용한 글이고, <보기 1>은 문단별 중심 내용을 파악한 후 학생이 그린 구조도이다. 이들을 참조하여 <보기 2>의 지시에 따라 한 편의 글로 논술하시오. [10점]

① 혹 문자의 사용 설명서를 본 적이 있는가? 인류의 문자사에서 문자 제작자가 직접 제공한 문자의 사용 설명서가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한글은 창제자에 의해 그것의 사용 설명서가 분명하게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문자들과 차이가 있다. 1446년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해례본 『훈민정음』이 바로 그것이다.

② ‘훈민정음’은 신문자(新文字)의 이름이자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해례본 『훈민정음』의 앞부분에는 본문에 해당하는 어제 서문과 예의가 있다. 그 뒤를 이어서 다섯 개의 ‘解’(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와 하나의 ‘例’(용자례)의 순서대로 구성된 해례가 자리하고 있다. 책의 마지막에는 편찬에 참여한 8명의 집현전 학자들을 대표해 대제학 정인지가 쓴 서문이 실려 있다.

③ 다섯 개의 ‘解’ 중 첫 번째인 제자해에는 신문자의 제자 원리가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다. 제자해의 모든 설명은 중국의 성운학과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신문자의 제자와 운용에 천지만물의 원리가 담겨 있음을 강조하였다.

④ 초성은 오음(五音)과 청탁(淸濁)을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ㄱ, ㄴ, ㄹ, ㅁ, ㅂ, ㅇ’ 5개의 글자가 각각 오음을 대표하는 기본자인데, 이 기본자는 사람의 발음 기관을 상형한 것이다.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ㄴ’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ㄹ’은 입의 모양을, ‘ㅁ’은 치아의 모양을, ‘ㅂ’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문자의 모양이 그것을 발음하는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이러한 설명은 실로 놀라운 것이다. 현대 조음 음성학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시 발음되는 말소리에 대한 정확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알지 못했다면 이와 같은 설명은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여 ‘ㄱ→ㅋ, ㄴ→ㄷ→ㅌ, ㄹ→ㄴ, ㅁ→ㅂ, ㅂ→ㅃ, ㅇ→ㅎ→ㆁ’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글자들을 만들어 냈다. 이때 획이 더해지는 것은 소리가 조금씩 세어지는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점에 착안해 후대의 학자들은 한글이 말소리의 음성적 특성, 즉 변별적 자질을 문자 제작에 반영한 유일무이한 자질 문자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⑤ 중성의 경우에는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를 상형해 기본자 3개(·, 一, |)를 만들고, 이를 다시 서로 결합하여 초출자(ㄱ, ㄴ, ㄷ, ㄹ)와 재출자(ㄲ, ㄴ, ㄷ, ㄹ)를 만들었다. 초출자의 경우 ‘·’와 ‘一’가 결합된 ‘ㄱ, ㄴ’은 천지가 처음 만난 뜻을, ‘·’와 ‘|’가 결합된 ‘ㄱ, ㄴ’은 천지의 작용이 사람을

매개로 사물에 발현된 뜻을 지니고 있다. 재출자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起於 |’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재출자가 반모음 ‘|’로 시작되는 상향 이중 모음임을 말한 것이다. 또한 ‘ㄱ, ㄴ, ㄷ, ㄹ’에서는 ‘·’가 ‘一’와 ‘|’의 위쪽과 바깥쪽에, ‘ㄷ, ㄹ, ㅂ, ㅃ’에서는 ‘一’와 ‘|’의 아래쪽과 안쪽에 위치하는데, 여기에는 각각 하늘과 땅에서 생겨나 양과 음이 되는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음양의 원리로 중성을 설명한 것은 모음조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⑥ 음절을 이루는 세 요소인 초·중·종성에 대해 해례에서는 각각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를 마련해 설명하고 있다. 초성과 중성에 대해서는 제자해에 이어 초성해와 중성해에서 다시 한 번 언급되고 있다. 초성해에서는 음절에서 초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했고, 중성해에서는 중성이 무엇인가와 더불어 상합(相合)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종성해에는 완급(緩急) 대립과 8종성에 대한 설명이 있다. 오음에서 ‘ㅇ’과 ‘ㄱ’, ‘ㄴ’과 ‘ㄷ’, ‘ㄹ’과 ‘ㅂ’, ‘ㅅ’과 ‘ㅈ’, ‘ㅇ’과 ‘ㅎ’이 각각 종성에서 서완(舒緩)함과 축급함의 발음 특성으로 대립되고 있으며, 실제로 8개의 종성(ㄱㅇㄷㄴㄹㅁㅂㅅㅇ)으로 종성 표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이것은 동일 조음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들이 조음 방식에 따라 그 발음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종성 위치에 나타났던 음절 말 중화 현상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보여 주는 대목으로 당시 말소리에 대한 음성학적, 음운론적 이해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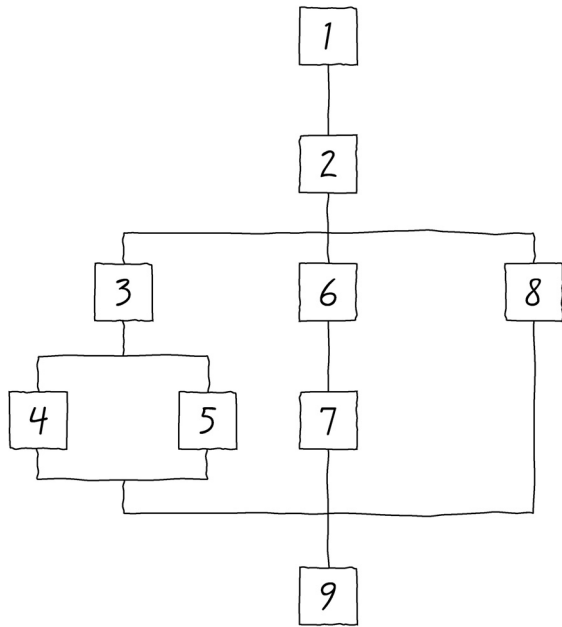
⑦ 초·중·종성이 하나의 음절로 합하여 표기되어야 하며 중성에 따라 초성과 중성의 결합 양상이 상하 또는 좌우로 달라진다는 점이 설명되었다. 또한 ‘짜’, ‘꽤’, ‘낫’에서처럼 초·중·종성에서 2자와 3자가 합용될 수 있음도 언급되었다. 그리고 각 음절의 성조 표시를 위한 방점 표기의 마련은 분절음이 아닌 초분절음을 표기법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반설경음 및 특이한 이중 모음 표기에 대한 언급은 해례 편찬자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당시의 말소리를 관찰했는가를 잘 보여 준다. 이처럼 합자해에는 초·중·종성의 음절 표기 및 합용에 대한 설명, 방점 표기, 그리고 세밀한 음성적 표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다.

⑧ 끝으로 용자례에는 94개의 국어 어휘들에 대한 실제의 표기 용례가 실려 있다. 용자례는 신문자의 실험장으로서뿐만 아니라 당시 존재했던 어휘들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어휘 자료로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러울’[𪎐], ‘사비’[𪎐], ‘비육’[鷄雛], ‘슈름’[雨繖] 등과 같이 이곳 용자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어휘 표기의 존재가 소중하다.

⑨ 이처럼 우리는 해례본 『훈민정음』의 곳곳에서 언어에 대한 당시 학자들의 놀랄 만한 관찰과 이해를 보여 주는 대목과 만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20세기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의 눈으로 당시의 언어를 관찰하고 기술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독보적인 문자와 그것의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한다.

<보기 1>

※ 위 글의 구조도를 그리시오.



<보기 2>

1. <보기 1>에서 학생이 그린 구조도에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 지적하고, 제시된 학습 자료에서 신문자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요약하여 쓸 것.
2. 지시 1을 바탕으로 읽기 교육에서 글의 짜임 파악하기와 요약하기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쓸 것.
3.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읽기 지도를 해야 하는 국어 교사의 소양과 관련해 결론을 맺을 것.

2. 다음은 고전 문학에 나타난 남녀 관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수업에서 활용한 작품이다. <보기>의 지시에 따라 한 편의 글로 논술하시오. [10점]

(가)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성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꺾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마음 이 스랑 견줄 더 노여 업다
 평생(平生)에 원(願)호요더 한디 네자 호얏더니
 늣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글이논고
 엇그제 님을 뵈셔 광한던(廣寒殿)의 올났더니
 그 더더 엇디호야 하계(下界)에 느려오니
 올 저귀 비슨 머리 얼키연 디 삼년(三年)이라
 연지분(臙脂粉) 잇니마는 놀 위호야 고이 홀고
 마음의 미친 실음 텃텃(疊疊)이 빠져 이셔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 (중략) ...

다른 희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청등(靑燈) 거른 것티 던공후(鈿箜篌) 노하 두고
 꿈의나 님을 보려 툇 밧고 비겨시니
 양금(鴛鴦)도 츠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썰고
 흐르도 열두 썰 혼 들도 설혼 날
 저근덧 싱각 마라 이 시름 닛자 하니
 마음의 미쳐 이셔 골슈(骨髓)의 썰터시니
 편작(扁鵲)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엇디호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브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더 족족 안니다가
 향 므든 놀애로 님의 오시 올드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츠려 호노라

-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나)

[요의 줄거리] 춘풍은 주색잡기로 재산을 탕진하나 춘풍 처의 노력으로 집을 다시 일으킨다. 그러나 장사를 하겠다며 평양에 간 춘풍은 기생 추월에게 돈을 다 빼앗기고 사환 신세가 되고 만다. 이에 남장(男裝) 비장(裨將)이 된 춘풍 처가 평양에 가 춘풍이 추월한테서 다시 돈을 돌려받게 해 주고 몰래 집으로 돌아온다.

이때 춘풍의 아내 문밖에 썩 나와서 춘풍의 손을 붙잡고,
 “어이 이리 더디 오셨소? 장사에 사망 많아 평안히 오시니까?”

춘풍이 반기면서,

“그 사이에 잘 있었는가?”

하고, 열두 바리 실은 돈을 장사해 남긴 듯이 여기저기 들여놓고 의기양양하는구나. 춘풍의 차담상을 별로히 차려 드리거늘, 춘풍이 온 교태 다할 적에 기구하고 볼 만하다. 콧살도 찡그리며 입맛도 다셔 보고 젓가락도 그릇 박으며 하는 말이,

“생치(生雉) 다리도 덜 구웠으며, 자반에도 기름이 적고 황

육(黃肉)조차 맛이 적다. 평양으로 갈까 보다. 호조 돈 곧 아니었다면 올라오지 아니 했지. 내일은 호조 돈을 다 바치고 평양으로 내려갈 제, 너도 함께 따라가서 평양 감영 작은집의 그 음식 먹어 보소.”

온갖 교만 다 할 적에 춘풍 아내 춘풍을 속이려 하고 황혼을 기다려서 여자 의복 벗어 놓고, 비장 의복 다시 입고 호늘거리 들어오니, 춘풍이 의아하여 방안에서 주저주저 하는지라. 비장이 호령하되,

“평양에 왔던 일을 생각하라. 네 집에 왔다 한들 그 다시 그만이라?”

춘풍이 그제야 자세히 본즉, 과연 평양에서 돈 받아 주던 호계 비장이라. 깜짝 놀라면서 문밖에 뛰어 내려 문안 여짜오되, 호계 비장 하는 말이,

“평양에서 맞던 매가 얼마나 아프더냐?”

춘풍이 여짜오되,

“어찌 감히 아프다 하오리잇가? 소인에게는 상(賞)이로소이다.”

호계 비장 하는 말이,

“평양에서 떠날 적에 너더러 이르기를, 돈을 싣고 서울로 올라오거든 댁에 문안하라 하였더니, 풍문 소식 하기로 매일 기다리다가 아까 마침 남산 밑에 박 승지 댁에 가 술을 먹고 대취하여 종일 놀다가 홀연히 내가 왔단 말을 듣고 네 집에 돌아왔으니, 흰 죽이나 쭈어 달라.”

한대, 춘풍이 제 아내를 아무리 찾은들 있을소냐? 제가 손수 죽을 쭈랴 하고 죽쌀을 내어 들고 부엌으로 나가거늘, 비장이 호령하되,

“네 아내는 어디 가고, 나에게 내외(內外)를 하느냐?”

춘풍이 묵묵부답하고 혼잣말로 심중에 생각하되, ‘그립던 차에 아내를 만났으니 우리 둘이 잠이나 잘 자 볼까 하였더니 아내는 간 데 없고, 비장은 이처럼 호령하니 진실로 민망(憫惘)하나 어찌할 수 없구나.’

호계 비장 내다보니, 춘풍의 죽 쭈는 모양이야 우습고도 볼 만하다. 그제야 죽상(鬻床)을 드리거늘, 비장이 먹기 싫은 죽을 조금만 먹는 체하다가 춘풍에게 상재로 주며 하는 말이,

“네가 평양 감영 추월의 집에 사환으로 있을 때에 다 깨진 흰 사발에 누룽밥에 국을 부어서 숟가락 없이 뜯어 아래 서서 되는 대로 먹던 일을 생각하여 다 먹어라.”

하니, 춘풍이 그제야 아내가 어디서 죽 먹는 모습을 볼까 하여 여기저기 살펴보며 얼른얼른 먹는지라. 그제야 춘풍 아내 혼잣말로,

‘이런 거동 볼작시면 누가 아니 웃고 볼까? 하는 행실 저러하니 어디 가서 사람으로 보일런가? 아무커나 속이기를 더 하자니 차마 그리 우스워라. 이런 꼴을 볼작시면 나 혼자 보기 아깝도다.’

이런 거동 저런 거동 다 본 연후에, 호계 비장 의복 벗어 놓고 여자 의복 다시 입고 웃으면서,

“이 멍청아!”

춘풍의 등을 밀치면서 하는 말이,

“안목이 그다지도 없소?”

춘풍이 어이없어 하는 말이,

“이왕에 자넨 줄 알았으나 의사(意思)를 보자 하고 그리 하였노라.”

하고 그날 밤에 부부 둘이 원앙금침 펼쳐 덮고 누웠으니 아주 그만 제법일세. 그럭저럭 자고 나서 그 이튿날 호조 돈을 모두 다 바치고 상덕(上德)하니, 수만 냥 재산으로 노비 전답 다시 장만하여 의식이 풍족하고 유자생녀(有子生女)하여 화연평생(和然平生) 좋을시고. 그릇된 것 없이 지냈으니, 대저 일개 여자로서 손수 남북하고 호계 비장 내려가서 추월도 다스리고 춘풍 같은 낭군도 데려오고 호조 돈도 수쇄(收刷)하고 부부 둘이 종신토록 살았으니 만고의 해로(偕老)한 일이로다.

- 작자 미상, 『이춘풍전(李春風傳)』

—<보 기>—

1. (가)의 시적 화자와 (나)의 ‘춘풍 처’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제시하고, 둘의 문제 해결 방식을 대비해 서술할 것. (단, (가)의 시적 화자는 여성임을 전제로 함.)
2. (가)의 시적 화자와 대비해 (나)의 ‘춘풍 처’와 같은 인간형이 갖는 시대적 의미를 제시할 것.

<수고하셨습니다.>

이 편은 여백입니다.